

#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마태복음, 히브리서



가정예배 안내서

#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마태복음, 히브리서



표지 사진 설명 : 매년 여름이면 각종 여름 행사로 교회는 한창 뜨거워진다. 금년도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들이 연이어 열리고 농어촌전도, 해외 단기 선교사역이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의 해외 단기선교 모습중 하나이다.

## 기도제목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담임 목사를 속히 허락하소서.
2.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3.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넘치는 사역을 위하여
4.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5.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구역 조직을 통하여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6. 교회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의 질적,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7. 민족 복음화와 복음으로 인한 남북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8.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하여



## 충현의 만나

1996년 8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 히브리서 서론

히브리서는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해 오셨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서신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옛적부터 마지막 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해 버렸고, 교회 또한 핍박의 소용돌이 속에서 건지기 힘든 때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악한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극심한 핍박을 가해 오더라도 평온한 마음을 잃지 말고, 인내하며 앞날에 영광이 있을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첫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둘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초라한 예배를 드림으로 실의에 빠졌을지라도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는 동안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보다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떠난 자들이 받게 될 형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길이 없다는 점도 확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① 새 언약의 당사자 그리스도(1:1~6:12) ② 두 종류의 언약의 상호관계(6:13~10:39) ③ 믿음, 두 종류의 언약에 대한 일반적 요소들(11~12장) ④ 실제적인 훈계(13:1~21) ⑤ 결론(13:22~25)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1

## (목) 가장 큰 계명

찬송 / 369장 본문 / 마 22:34-46

『...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22:37)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천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방법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전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말과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식으로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면서 주일을 적당히 지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 사랑의 실천의 현장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23:11)

사람이 어디에 앉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의 권위가 달라집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서 하는 말은 한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앉은 자리만큼 영향력이 임하게 됩니다.

바래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에게는 모세가 그랬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가르친 대로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고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자신 들은 예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활화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교만한 종교적인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큰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큰 자입니까? 아니면 자리만 차지하는 교만한 자입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대로 행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를 찾으시며, 자신을 낮추는 자를 원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가 앉을 자리에 앉아서 겸손히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은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소서.

『...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23:28)

예수님께서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책망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려면 회개와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그들은 맹세에 대한 율법 조항에서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하면 효력이 없고, 금이나 예물로 맹세해야 효력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야채까지도 철저히 십일조를 드리도록 강조하면서도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실천하지 않는 외식을 서슴지 않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결법에 따라서 그릇은 잘 닦지만 그 안에 담는 음식물은 부당하게 취한 것이라는 잘못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 조상들에 의해 살해된 선지자들의 무덤을 지키다고 하지만, 사실은 조상들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의 파괴를 내다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철저히 외식하는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외식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십계명을 순종하되 겉으로만 말고 단마음으로 순종하는 진실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조심할 것은 십계명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강요하던 율법이라고 착각하여 방종에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철저히 한다고 교만하지 말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가 점검해야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말씀을 단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양육할 담임목사님을 하루속히 보내 주소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24:14)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가까워 오면 무슨 징조가 있는지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전쟁과 난리 소문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재난의 시작이 되면 사람들이 성도들을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미움을 많이 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므로 모든 소수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행 1:8)고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재림을 사모하면서 선교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결국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선교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선교 헌금에 적극 참여하며, 선교 훈련도 받고, 보내든지 나가든지 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미전도 종족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힘쓰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24:27)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신성 모독 사건과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지체하지 말고 도피하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함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미혹되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성도들에게 말하지만 믿지 말아야 한다고 일러 주셨습니다. 재림의 장소를 묻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번개가 번쩍임같이 동서남북 어디서라도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해도,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미혹을 받지 말고, 거기서 가보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체가 있는 곳마다 독수리가 모여드는 것처럼 인류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라도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세계에는 여러 가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재림이 이루어졌다고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재림은 특별한 사람들만 알도록 되는 것이 아니라는 성경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속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호기심을 버리고 말씀을 믿고, 미혹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손들과 교회학교 학생들에게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재림은 누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일어날 것입니다.

- ▶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단들에게 속지 않게 하소서.  
② 모든 교역자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소서.

찬송 / 168장 본문 / 마 24:39-51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24:45)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고 합니다. 재림 직전의 세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몰라도, 노아의 때와 같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음식을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항상 영적인 일과 내세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세의 무사안일함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깨어 있으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깨어 있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고 민감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직분에 충성하며 지혜롭게 주님의 사람들을 돌보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사모하면서 죄짓지 말고 열심히 자기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모여만 있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영혼 구원과 이웃 사랑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인 줄 알고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부족을 알고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충성하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잘 섬기게 하소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25:13)

본문에는 구원받은 다섯 처녀와 구원받지 못한 다섯 처녀가 등장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다섯 처녀는 무엇이 부족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까? 첫째, 미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은 단순히 어리석음을 일컫지 않고 '영적 무지'를 가리킵니다. 실로 영적으로 무지했던 다섯 처녀들은 참 구원의 방법을 깨닫지도, 알고고도 하지 않은 채 단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만족해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반면 다른 다섯 처녀들은 실로 구원의 길이자,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온갖 지혜와 보화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익히 체험한 자들입니다. 진정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호 4:14)는 호세아의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밤중 어느 때에 이를 줄 모르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일에 있어, 등불의 기름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밝은 등불이야말로 신랑과 처녀들 사이를 서로 알아 보도록 만드는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의 기름이야말로 신랑을 맞을 준비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그것을 준비하지 않은 채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함에 있어 절대 필요한 기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예수님을 맞을 완벽한 준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름', 즉 성령을 받은 거듭난 성도입니까? 항상 깨어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①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깨어 있어 주님을 맞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25:21)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모두 '바로 가서' (16절) 그것으로 장사하여 각기 갑절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부정적 심리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겉으로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나태한 심리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 중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의 사업을 감히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매사를 하나님께 일임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맡긴다는 것은 일체의 임무로부터 해방되어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지기적 사명을 지니고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그의 말 속에는 고작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한 사실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담겨 있으며, 또한 다섯 달란트나 두 달란트 받은 자들과 스스로를 비교함으로써 느끼는 상대적 열등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대답에서 명시되었듯이 한 달란트뿐만 아니라 다섯 달란트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재능이나 권세, 돈, 지식, 건강 등에 있어 크고 작거나 혹은 다양한 달란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 각자의 받은 바 은사가 지닌 고유한 특성을 깊이 인식하고 받은 바 소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에 힘써 갑절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② 교회일꾼들이 신한 청지기로써 봉사하게 하소서.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25:46)

사람들을 외모로만 보면 서로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서로 현격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도 그 차이는 엄청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순종의 자녀와 불순종의 자식이란 차이입니다. 여기 양과 염소의 비유는 신자와 불신자에 대한 마지막 날의 최후 심판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양과 염소의 성격은 너무나 다릅니다. 양은 순종이 어떤 것인가를, 그러나 염소는 불순종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 주는 짐승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본래부터 반항적으로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를 잡으려는 불순종의 자식인 중생하지 못한 자연인을 염소에, 그리고 변화하여 순종의 자녀가 된 성도를 양에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둘째, 사랑을 실천하고 못하는 차이입니다. 양으로 비유된 참 성도들은 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등 사랑을 실천하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실로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불쌍한 사람들을 자기 이웃처럼, 나아가 자기 몸처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염소같은 자들은 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사랑을 귀로만 들었을 뿐, 전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양과 염소는 외형은 비슷하지만 그 행위를 볼 때 그들 사이는 현격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 순종과 사랑의 실천은 중생한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성령의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창조주이시며 사랑의 주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의 모든 길을 그분께 맡기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선한 사업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하소서.

『...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26:13)

이스라엘에서는 예로부터 손님이 연회에 도착하면 환영한다는 표시로 그 몸에 기름을 발라 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에 마리아가 와서 아주 귀한 향유를 한 옥합이나 주님의 머리에 붓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첫째, 극진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만한 사랑이 없었다면 절대로 것처럼 값진 향유를 그 분께 부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적인 헌신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권고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롬 12:1)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보답은 우리들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셋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표시입니다. 물론 마리아 자신은 자기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다고 생각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자신은 당신의 장례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최고의 예우, 생각하면 이보다 더 눈물겹고 감격스러운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받아 들이는 엄숙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행위는 신앙의 극치이자 절정입니다. 우리 역시 마땅히 그런 신앙을 예수님께 바쳐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그런 절정의 신앙을 예수님께 기꺼이 바치지 않으시겠습니까?

▶ 기도 제목 / ① 값비싼 향유를 바친 마리아처럼 나의 좋은 것을 기꺼이 바치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부르게 하소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26:28)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열 가지 재앙 중에 가장 무섭고 비참한 재앙을 내려 애굽의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이 재앙에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는데,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와 무교병을 먹고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유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 놓고 떡을 떼어 주시며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에게 나눠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예식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자신임을 보여 주며,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며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적인 체험을 하셨습니까? 이런 체험이 없다면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만찬을 기억하면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① 성만찬의 사건과 그 의미를 잘 인식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살과 피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시다.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사의 직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겻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26:36)

기도는 믿는 자의 호흡이며, 고난과 환난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기도는 나의 사건 속에 하나님을 모셔 와서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믿음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힘과 결단으로는 도저히 짊어질 수 없는 십자가를 눈 앞에 놓고 예수님은 혼자 고민하고 갈등한 것이 아니라 겻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피방울같이 흘러 내리도록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인간의 결심과 각오는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간곡히 부탁하셨건만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제자들은 잠만 자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다 도망가는 비겁함과 부끄러운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과오를 범하며, 다가오는 고난에 굴복하는 잘못을 범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범사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주어진 권세이며,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바벨수록 더욱 기도하셨고, 힘들고 외로울 때에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활 속에 바쁘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기도의 분량을 늘려가야 합니다.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사건을 처리해 주시니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 기도 제목 / ① 기도하는 구역, 교회가 되게 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26:50)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배신했고, 주님과 함께 죽을 것을 결심하고 각오했던 열한 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 줌이 된 것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내어 줌을 당한 어린 양처럼 본문에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내어 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적의 손에 잡혀가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 들이셨습니다.

가롯 유다를 향해 예수님은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배신을 사랑으로 갚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배신자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제자들에게 하신 “네 원수를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라”는 말씀을 친히 실천하신 것입니다. 둘째,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것,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그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이며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맡은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한 제자들도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 별 수 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무장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따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소서.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26:72)

갯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체포한 무리들은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하나의 요식절차에 불과했고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많은 수난과 고통, 비웃음과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도 변명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제물이 되기 위해 죽임을 당할 때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나 양처럼 반항하거나 울지 않고 잠잠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은 수제자인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좇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58절)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연약하고 두려움으로 가득찬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갔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사람임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을 좇기는 했지만 가까이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여인 앞에서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눈에 항상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만 교회를 나와서는 안됩니다. 새벽기도회, 수요일예배, 금요일집회에도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보다 앞서가도 안되며 또한 너무 멀찍이 떨어져도 안됩니다. 날마다 앞서 가시는 주님이 보이는 거리 내에서 주님을 좇아갑시다.

▶ 기도 제목 / ① 베드로처럼 주님을 멀찍이 쫓아가다가 주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이 나라에 정의와 도덕이 살아나게 하소서.

\*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 (27:9)

본문은 가롯 유다의 자살이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판 데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3-5절)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죄가 전혀 죄가 없으셨으나 불의한 자들의 체계로 잡히셨음을 보여 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아야 하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아무리 자신의 죄악을 후회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지 않으면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뒤늦게나마 가롯 유다가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자괴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저 후회에 머물고 말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설혹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의 용서를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 생각되어도 오직 참된 회개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케 해 주십니다.(요일 1:9) 둘째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인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만약 가롯 유다가 진정으로 자신의 죄악을 참회하기 원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보다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택해야만 옳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결코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명목으로도 경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대상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대속을 찬양합니다. ②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sup>7</sup> 한 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27:14)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사전의 각본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적용하여 이미 사형을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가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이송시켜 합법적인 사형선고를 받아 내려고 하였습니다.(1, 2절) 본문은 바로 이 같은 배경으로 빌라도의 심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빌라도에게 두 차례에 걸쳐 심문을 받으셨는데 첫 심문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11-14절) 때문에 그는 유대인의 명절에 죄수를 특별사면 하는 전례를 따라 예수님을 놓아 주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로 하여금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와 예수님 사이에 양자 택일하도록 했는데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빌라도는 누구보다도 유대지도자들의 음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지만 구태여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과 극단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도록 내어 주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깨닫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성도들은 불의와 거짓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격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임을 깨닫고 자신의 권력을 일신상의 영달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진리를 드러내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불의의 값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거짓과 불의를 보고 용감히 싸우는 용사들이 되게 하소서. ② 장애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27:35)

본문은 빌라도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의 손에 넘겨져 엄청난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일체의 조롱과 멸시에도 묵묵히 참고 견디셨습니다. 실로 만왕의 왕이시요 천지만물의 주재자이신 성자 하나님은 인류 대속의 사역을 위해 세상의 일개 군병들의 모욕까지도 참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 3장 3절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서는 비록 로마 군병들의 조롱이라 할지라도 로마 군병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방인들로부터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동방박사들의 아기 예수께 대한 경배와 일치하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할 때”(시 22:27)를 맞이 할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시며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의 발로였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성도들이 악인의 핍박을 받을 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속을 위해 모든 고난을 참으신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써 승리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통해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게 하소서. ②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질병을 속히 낫게 하시어 복음 사역에 전념하게 하소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27:51)

본문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과 모욕을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것과 관련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삼시(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박혀 제구시(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시간은 6시간 동안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를 가리켜 일명 '가상칠언' 이라고 합니다.

한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몇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첫째,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로 되고(51절) 둘째,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 자던 성도들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52절) 이러한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먼저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하나가 이루어져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시사합니다.(히 10:19, 20)

또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난 사건은 장차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성도들을 지배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여 죽음조차도 두려워 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받은 축복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② 육호기 선교사(독일)를 통해 배포되는 러시아어 성경이 러시아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28:19, 20)

본문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대명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완수해야만 합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게 된 한 영혼이 그저 겉 모습만의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엡 4:13-15)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는 항상 함께 있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게 되는 것은 먼저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지상대명을 따르게 하소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가 출강하는 복음주의신학교를 통해 좋은 사역자들이 배출되게 하소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 (1:3)

히브리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를 인간들에게 보여 주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특히 본문은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탁월한 능력과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원래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으로,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생명의 길이며 진리라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방식으로 인간들을 가르치시다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구속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또 아무도 보지 못하던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주장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운데 있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린다면 모든 죄악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시사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며 더욱 신실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 혹은 상황에 따르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며 주님께 영광돌리는 성도들이 됩시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게 하소서. ②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의 사역을 통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도 ...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2:4)

본문은 복음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구속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쉽게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경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빌 2:12)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삶의 불가분리적인 원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듣고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죄악의 유혹과 시험이 닥쳐올 때마다 여지없이 넘어가 버리기 쉬운 연약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초월적인 능력과 신실한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시사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의 능력에 알맞은 은사를 다양하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베푸신 명확한 구속의 표징이며, 사람의 말과 사람의 능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 참으로 귀중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증거를 확신하고 복음의 귀한 뜻을 깨달아 더욱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확실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게 하소서. ② 안식령 선교사(수리남)의 사역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3:14)

본문은 만유의 주재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고 증거합니다. 따라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위한 준비자였으며, 완전한 구원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었고(출 33:11),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위대한 인물이기는 하였으나, 결코 그리스도의 사역에 견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가르침을 기억하며,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악의 그릇된 유혹으로부터 나의 영혼이 강박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며 동시에 지극한 감사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은총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1절) 합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시며,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경외해야 할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참된 성공자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 모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그 사역에 함께 참여하게 하소서. ② 김은태 선교사(중국)의 사역으로 중국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루 속히 임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4:16)

하나님께서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졌다고 다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하여 이 안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으나 믿지 못하여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 앞에 살고 있는 장대한 거인들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해 주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과 죄악들을 낱알이 지적해 주었듯이, 오늘날 믿지 않는 우리들의 불신앙과 죄악도 낱알이 지적해 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워 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채워하셨지만 모든 죄와 싸워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분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실 것이며, 우리가 당한 모든 어려움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② 김영대 선교사(수단)가 진행하는 현지인 성경 공부를 통해 수단인의 마음에 복음이 뿌리내리게 하소서.

? ...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 (5:6)

인류 역사 이래로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같은 약점을 지닌 연약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제사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속죄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아무나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론 자손들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 자손 대신에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론 자손들과는 달리 죄와 허물이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에서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싸우셨고, 순종할 힘을 얻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의 기도를 드리셨으며,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 순종할 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론보다 더 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제사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에게 참다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②유병세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사역으로 일본 민족이 우상숭배가 헛된 것임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6:2)

우리는 복음을 믿은 후에 그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더욱 더 장성한 믿음, 자립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진하지 않는 신앙은 자립하지 못합니다. 본문에서는 이런 신앙을 젖을 먹는 신앙이라고 했는데 젖을 먹는 신앙이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젖먹이 신앙에서 일어나서, 연단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초적인 교리에만 머무르지 말고, 더욱 더 완전한 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진하지 못하는 신앙은 자신이 받은 신앙의 교리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계속 믿음의 기초에만 머무르게 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발전하지 못하여 항상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받은 믿음의 도리를 다시 쌓으려 하지 말고, 이미 받은 것에 굳게 서서 더욱 더 완전한 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전진하지 못하는 신앙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엉성퀴와 가시 같은 쓸데없는 열매들을 맺게 만듭니다. 땅이 비를 흡수하여 좋은 나무와 채소를 내면 주인에게 사랑을 받지만, 비를 흡수하지 않아 단단해져서 가시와 엉성퀴만 낸다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 불사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 기도 제목 / ① 더욱 더 완전한 데로 나아가는 신자들이 되게 하소서.  
②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의 사역으로 유학생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6:19)

소망은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닻과 같은 역할을 해 줍니다. 우리는 배가 풍랑에 의해 크게 흔들릴 때에 닻으로 그 배를 견고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소망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를 견고하게 서서 인내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하늘 나라와 영생의 삶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이 하신 말을 번복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소망을 굳게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시험의 바람 속에서도, 이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그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 수많은 역경과 시련의 풍랑을 건디고 굳게 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생의 삶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가 이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인내로 살아가게 하소서. ②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의 사역으로 물질의 풍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7:2)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의의 왕을 뜻합니다. 그는 '평강의 왕'으로 불리어집니다. 그 당시 세상은 온통 거칠고 난폭한 무법천지였는데 그가 다스리는 살렘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던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노략물의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본래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는 법이기 때문입니다.(7절) 이런 점에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제사장들이나 그 외의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대제사장이로서 어떠한 섬김이나 봉사도 그 분께 드려져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선민들의 최고 조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리고 축복받은 것처럼, 오늘날의 어떠한 위치나 신분에도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마땅한 예물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복받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며, 승리하게 하소서. ②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가 전개하는 선교 사역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소서.

“...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7:28)

모세의 율법은 일시적인 목적을 위해 세워진 것이므로, 그 율법은 때가 되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 세워지고 섬기던 제사장들은 영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기 죄를 위하여서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었을지라도 세월이 흐르고 나면 죽음을 인하여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맡으신 제사장 직분은 결단코 멈추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은 독생자로서 몸소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심으로 새로운 언약의 중보가 되셨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독생자는 성도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며 상한 심령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따라서 아무리 무겁고 중한 죄일지라도 그 죄의 능력이 영원한 대제사장의 중보의 사역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분은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분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은 그 어느 무엇으로도 멈추어질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었으며, 그렇게 하여 결국에는 온전케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제사장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 분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인간들을 위하여 항상 살아서 간구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을 꼭 붙잡으십시오.

▶ 기도 제목 / ①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②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사역으로 일본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8:6)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이 첫 언약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에 대해서는 다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둘째로 새 언약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그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남아지거나 쇠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어떠한 것이기에 이 같은 효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새 언약의 중보가 그리스도이시 때문임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분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 분은 모든 영적인 집들을 다 스리십니다. 그 집들은 곧 우리들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그 안에서 그 분은 온전하고 탁월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시며, 하늘에 베풀어진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중보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거룩한 새 언약의 약속들을 누리는 일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답게, 그리고 마음에 새겨진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①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② 북한에 남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소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9:1) 역사서 10장 1-10

이제 성도들은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면 첫 언약 때 섬기던 세상의 성소의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비한 첫 장막에 있는 성소의 모든 기물들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 장막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의 성소가 하늘 지성소의 그림자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참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첫 언약의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일년에 한 차례씩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였으며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단번에 드려진 하늘의 속죄는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시면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큰 희생제물로 인해서 새로운 제사장이 성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언약은 언제나 죽음을 통하여 효력을 갖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첫 언약의 성소의 직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이제 자기를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심으로’ 죽음의 문을 지나서 생명의 새 언약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오늘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를 드립니다. ② 제2교육관 공사가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게 하소서.

『...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9:22)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양심은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죄에 빠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한 예배입니다. 양심에 죄를 가지고서는 결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양심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심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양심이 평온하게 되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즉 죄에 대한 공포와 경계심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제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며, 자유롭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의 순종은 강요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됩니다. 이러한 마음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합니다.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양심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졌습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성도들이 됩시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② 8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9월에도 사랑으로 함께 하소서



MEMO



## MEMO

[illegible]

## 가정예배 안내

### ■ 예배순서

|        |            |
|--------|------------|
| 찬 송    | ..... 다 같이 |
| 성경봉독   | ..... 사회자  |
| 메시지 낭독 |            |
| 기 도    | ..... 다 같이 |
| 주 기도   | ..... 다 같이 |

####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